문두루비법과 진호국가불사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교수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요즘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라는 말이 살짝 유행인 것 같은데, 실제로 나라를 구했던 영웅 중에 명랑(明朗) 스님을 능가하는 분이 없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문무왕 8년(668), 당나라군이 신라군과 합세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남은 군사를 백제에 머물게 하고 장차 신라를 쳐서 멸망시키려 했다. 다행히 정보를 미리 입수한 왕이 신하들을 불러 대책을 의논하자, 한 신하가 용궁에서 비법을 배워온 승려라며 명랑을 추천했던 거다.

급박한 상황에서 등용된 명랑은 경주 낭산(狼山)의 남쪽 신유림(神遊林)이란 곳에 정식 도량을 개설하도록 건의했는데, 때마침 사자(使者)가 달려와 당의 수군이 이미 한반도 인근 해상을 순회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명랑은 급한 대로 오색 비단을 써서 임시로 절을 짓고 풀〔草〕을 엮어 오방(五方)의 신상(神像)을 밀단(密壇)에 봉안하여 유가명승(瑜伽名僧) 12명과 함께 문두루비법을 행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놀랍게도 무려 50만 대군을 태운 당나라 배들이 정주(貞州) 인근 해상에서 격랑에 휩쓸려 침몰했고, 이듬해(671)에도 5만의 대군이 침입했는데 역시 같은 비법으로 인해 모두 수몰되었다고 『삼국유사』는 전하고 있다.

문두루는 원래 산스크리트어 'Mudra'의 음사(音寫)이며, 중국 동진(東晉) 시대에 뜻으로 번역한 말이 '신인(神印)'이다. 오방의 신상이란 일정한

명랑 스님의 문두루비법은
일촉측발 전시 상황 호전
진호국가불사 참뜻 되새겨

규격의 둥근 나무 위에 오방신왕(五方神王)의 이름을 써서 만든 일종의 재래식 신상(神像)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밀교의 이러한 상징적 도구를 삼매야형(三昧耶形)이라고 한다. 일종의 초기밀교적 공감주술이 이 문두루비법의 근간인 듯한데, 이를테면 비슷한 것끼리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식이다.

문무왕 19년(679), 삼국통일과 나당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명랑이 종전에 문두루법을 행했던 신유림의 임시도량 터에 사천왕사(四天王寺)가 새로이 창건된다. 사천왕사는 국가적으로 관리된 사원이기도 했고, 신라불교에 있어 그 사격(寺格)이 가장 높았다. 근래에 들어 경주시 배반동 소재의 낭산 아래턱에 폐사지로 남아 있던 사천왕사 터가 발굴되면서 수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조금씩 그 면모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특히 파편 조각들을 복원한 녹유신장상이 100년 만에 공개되어 몇 해 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성과를 요약해 보면 이렇다. 사찰의 전체 윤곽은 중앙의 금당을 중심으로 전방 동서의 탑과 후방 동서의 단석(壇石)이 오방신(五方神)의 상징적 표현으로써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특히 후방에는 각각 지름과 깊이가 약 20㎝를 웃도는 구멍이 뚫린 12개의 초석(礎石)이 동서 대칭의 형태로 총 24개가 남아 있는데, 이는 12명의 유가명승에 대응하는 상징적 조형물임이 확실하다. 이처럼 명랑의 문두루비법은 일촉즉발의 전시 상황에서 사태를 일거에 호전시킨 진호국가불사의 일례로서 13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히 인간의 지성으로는 풀 수 없는 불가사의함을 사천왕사 터에 전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쩌면 통일이 가까워진 이 시점에, 진호국가불사의 참뜻을 되새겨본다.

끝나지 않은 충청 지역 불상 환수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얼마 전 월간지에 모 교수가 쓴 부여 백제관음보살입상과 서산 부석사 관음상에 대한 기고문을 보았다. 주요 내용은 '해외 유출 불상에 대한 감정 과잉'을 지적하는 것이다. 내용 중 일부는 이와 같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거액을 들여서라도 규암리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을 구입해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과 적절한 가격 이상으로 사들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 논란은 기본적으로 해외 유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했다. 그런데 그 애틋한 마음이 지나쳐 감정의 과잉으로 나아갔다."

두 불상의 환수 활동을 10여년 간 함께 했던 필자로서는 해당 기고문의 내용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 문화유산 회복운동의 본질과 원칙을 이야기하고 싶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은 2013년 3월 '불상 봉안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7년간 재판을 거쳤다. 재판 결과는 민법상 '시효취득 성립'에 의해 대마도 관음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했지만, 고려 말 왜구의 약탈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결국 재판은 약탈품이라도 점유 시효로 인해 소유권이 20년 이상 점유자에게 있다는 민법의

서산 관음상 등 환수 비판은
피상만을 본 무책임한 행동들
역사적 상처 치유임을 알아야

한계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도품(盜品)에만 주목하고 역사적 사실을 밝히거나 재판부에 의해 전부 배척된 피고 검찰의 무리한 항소 이유를 질타하기보다는 여전히 약탈의 개연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피상적인 결과보다는 깊이 있는 안목과 공부가 절실하다는 것이 봉안 운동에서 겪은 체험이다.

부여 규암리 백제관음보살입상에 대해서는 가치보다는 가격에 집착하며 "거액의 협상액을 꾸중"한다. 그럼에도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 불상의 가격을 밝힌 것은 정부다. 이는 이전에 없던 일이며, 협상에서 벌어진 과정이고 결론이 아니다. 지금도 과정에 있고 과정은 변하게 된다. 그러니 일부의 내용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주장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화유산회복운동은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예술 등 전 분야가 집약된 운동이다. 역사적인 활동에는 일각의 주장만이 아니라 전 사회 구성원의 의견과 여론도 중요하다.

손재형 선생은 1943년 폭탄이 떨어지는 도쿄로 가서 소장인의 거듭된 거절에도 100일 안부 인사를 하는 정성을 다한 끝에 현재 국보인 '세한도'를 돌려받았다. 정성을 다한 것이다. 회복과정은 이처럼 정성과 정량이 합치될 때 그 효과가 만발한다. 마치 병자에게 약물과 기도가 필요한 것과 같다.

감정은 배척할 것이 아니라 승화돼야 한다. 회복 운동은 물건 되찾는 일이 아니라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문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소모적 쟁화(爭話)보다는 안목있는 성찰(省察)이 절실하다. 지금도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社 說

단기출가·여름불교학교, 계층포교 계기로

7월 내 이어졌던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염천(炎天)을 피해 산과 바다로 여름휴가를 떠날 시기가 됐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눈길을 끄는 것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휴가 대신 나를 찾아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단기출가 체험이다. 수원 봉녕사 제2기 여성출가학교에는 9명의 여행자들이 참여해 비구니 승가의 일상 수행과 생활 전반을 체험했다. 이번 2기는 여름휴가 기간동안 입교해 생활할 수 있도록 10일로 일정을 단축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는 청년회원 16명이 여름방학과 휴가기간을 활용해 단기출가 생활을 해서 화제가 됐다.

휴가 대신 단기출가, 어린이 불교학교 재시동
전법 · 포교 화두 대두…지속적 지원 이뤄져야

이들은 여름방학과 휴가기간을 활용해 동참한 이번 참가자들은 출가 기간 최선을 다해 수행에 임했다. 머리카락 일부를 잘라내는 '무명초 자르기'를 시작으로 개인물품 봉안, 행자복 착복, 대승원력 10계 절하기 및 발원문 낭독 등을 통해 출가로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올 여름 눈길을 끄는 포교 트렌드 중 하나는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의 완전 부활이다. 전국 사찰에서는 일상 예절을 배우거나 태양 관측, 숲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캠프들이 열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춤했던 사찰 여름불교학교들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0일에는 서울 봉은사가 첫 어린이 영어법회를 봉행했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경력 20년의 전문가들이 선생님이 돼 진행한 법회에서는 영어로 사찰예절을 배우고, 게임도 하며 불교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이 같은 일련의 변화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시작된 대학생 전법 활성화와 함께 MZ세대를 중심으로 '힙(Hip)불교'가 부각되면서 전법·포교 전반에도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불교 신도 연령 구조는 타종교와 달리 역피라미드 형태다. 노인 신도가 많고, 나이가 어릴수록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이는 어린이·청소년, 청년 등 계층포교의 붕괴로 인한 결과물이다.

실제, 어린이 포교의 경우 일제강점기 사찰 포교소에서 운영됐던 일요불교학교에서 시작됐을 정도로 유서가 깊다. 1982년 부산불교어린이지도회가 창립되면서 현대적 포교가 이뤄지며 한때는 어린이 불교 전문 잡지까지 발행될 정도 활발했지만, 1990년대 이후 어린이 법회가 줄면서 계층포교라는 포교 사다리는 무너졌다.

사실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단기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도 꾸준히 투자해야 진성 불자 한 명을 만들 수 있다. 불교계 전반이 '포교·전법'을 위해 한 목소리로 움직이는 것은 고무적이다. 불교중흥의 성패는 포교·전법에 있음을 알고 전 사부대중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 같은 기회는 쉬이 오지 않음을 사부대중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불기2568년
종도 하계연수교육

불기2568(2024)년 종도(스님, 법사님) 연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본 종단의 포교활동 능력을 향상하고 종도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오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2024년 9월 24일(화) 오후2시 ~25일(수)
■장 소 : 교원도고연수원 (충남 아산시 선정면 신성길 27-6)
■신 청 : 각 지역교구 또는 총무원으로 접수
■비 용 : 10만원
■준비물 : 가사, 장삼, 세면도구

불기 2568년(2024) 8월 14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2024하계
종도 연수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중국 남경 서화사에서 승랑대조사 다례재 등을 봉행하는 2024 하계 종도 연수를 진행하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8년(2024) 8월 14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8월 14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